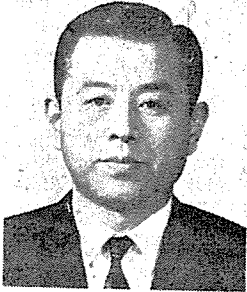


新 年 辭

金 仁 哲

<大韓齒科醫師協會長>



多事多難했던 丁巳년도 어느덧 저물어 이제 大望의 「戊午」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1년간 淺學非才한 本人으로 하여금 大過없이 會務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任員陣과 3천여 會員여러분의 積極적인 聲援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를 맞아 전국會員 여러분의 家庭에 神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頌祝하는 바입니다. 會員 여러분!

이제 우리는 祖國近代化의 極찬 꿈과 福祉社會 실현의 꿈을 눈앞에 바라보며 民族中興의 隊列에 참여하여 오늘을 즐기게 대체 복된 내일을 위해 不斷히 精進해야 할 중대한 時點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해는 美軍撤收云云의 渦中에서도 經濟開發 4차 5개년 계획의 巨步가 내딛어져 先進立國의 基盤을 굳건히 다졌으며 史上有例없는 大豐作으로 쌀을 輸出하여 受惠國에서 施惠國으로 탈바꿈한 획기적인 전기를 맞았으며 더우기 醫療本然의 至高한 目的이며 理想인 醫療保護事業과 醫療保險이 실시된 醫療史에 新紀元을 이룩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한 世代가 한해를 보내고 맞는다는 것은 하늘의 攝理이겠으나 한 사람의 齒科人으로써 한해의 齒科界를 決算하고 迎新한다는 것은 실로 크나큰 感懷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의 齒科界는 조류와 같은 激動期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술한 餘韻을 뿌리며 醫療保險이 定着되어 갔고 齒科器資材의 流通과 價格不均衡은 終着을 보지 못했으며 齒科醫療體制改革要求등 시급한 狀況은 全齒科界에 던져진 衝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齒科界의 人和協同으로 쌓아 올린 奉仕의 담은 年 3천여명의 영세민에게 無料診療를 베풀 「새마을 齒科診療院」에서 높이 認定되었으며 「설탕달 먹기 運動」을 展開하여 國民口腔保健思想鼓吹에 기여하며 신뢰받는 齒科醫師像을 定立하고 齒科醫療人의 긍지와 團合에 이바지했습니다. 더우기 지난해 FDI總會등 많은 國際會議에 우리會員들이 大學進出 참여함으로써 國威宣揚은 물론 研究 精進하는 齒醫像을 對內外에 과시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會員 여러분께서 쏟으신 貴重한 勞苦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物心兩面으로 지원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衷心의 致賀를 드리는 바입니다.

새해를 맞는 마당에서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많은 문제들은 훗날 齒科界의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할만큼 重且大한 일들 뿐으로써 既實施되고 있는 醫療保險문제만 하더라도 診療酬價現實化 對保險組合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散在해 있으며 機材등의 圓滑한 供給과 價格問題 등도 시급히 調整되어야 할 難題들입니다.

또한 齒科醫師는 물론 技工士 및 衛生士들의 需給計劃에 철저를 기해서 올해부터 擴大되는 醫保制度에 對處해야 하겠고 「설탕 달 먹기 運動」의 始發로 口腔疾患豫防事業을 汎國民의으로 展開해야겠으며 齒科器資材國產化를 적극 誘導하여 機材需給에 圓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같이 새로운 制度의 現實化나 새로운 齒醫像創造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團合된 位置를 基礎로 親睦互주의 團體를 지양하고 國民口腔保健受任團體로써 우리團體를 成長시켜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政策轉換에는 非能率的인 安逸한 思考의 追從보다는 스스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姿勢를 확립해야 될 것이며 오직 강인한 意志와 自己革新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醫療社會의 진정한 利益을 追求하고 社會公益에 공헌키 위해서 會員각자의 자세확립과 醫療人의 긍지를 살려 誠實과 情熱로써 內外를 直視할 때입니다. 80년대 복지사회건설과 풍요한 社會具現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社會에 이바지하고 國家와 民族을 위해 공헌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會員 여러분의 至高至純한 愛心발휘를 거듭 부탁드립니다.